

## 미국 대학의 주요 특징과 당면과제: 다양성, 자율성, 실용성을 중심으로\*

이성호(李聖虎)\*\*

### 논문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대학의 성장과 발전 과정에 대한 고찰을 통해, 그 성공 요인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함과 동시에, 이를 토대로 우리의 대학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초점은 미국 대학의 강점, 추세, 현황, 문제점 등 보다 전반적인 영역에 맞추어 진다. 본 연구는 우선, 미국 대학의 변천을 간략히 개괄한다. 다음으로, 미국 대학의 중요한 특징이자 장점을, 다양성을 토대로 한 분화(differentiation), 자율성 (autonomy), 실용주의(pragmatism) 등의 3가지로 규정하여 이들 각각에 대해 논의한다. 아울러, 대학 발전에 기여한 연방정부의 역할을 소개한다. 끝으로, 미국 대학이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점 — 신입생의 학력저하, 연구와 교육간의 불균형, 교양과 직업의 갈등, 교육기능의 약화—과 그 해결을 위한 노력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우리 대학의 다양화와 자율화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한다.

- 주요어 : 미국 대학, 다양성, 분화, 자율성, 실용성, 미국 대학의 과제, 연구 중심 대학, 종합 대학, 교양 대학, 지역 초급 대학, 기부금 모금

\* 이 논문은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199-6-1)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

## I. 서론

지식의 전달과 특정 전문직의 훈련을 위해 12세기 말 유럽에 대학이 설립된 이후 오늘날 까지 대학교육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모두 엄청나게 변화되어왔다. 이제 대학은 더 이상 '속세'에서 유리된 '상아탑'이 아니며, 대학 교육 또한 소수 엘리트 계층의 전유물도 아니다. 전 세계로 확산된 현대의 대학은 교육과 학문 연구는 물론 정치·경제·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교육에 대한 수요의 증가와 그에 따른 대학 팽창의 결과, 대학은 현재 자원의 제한으로부터 비롯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고, 이는 많은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Altbach, 1999:15). 우리 나라의 경우도 문제는 심각하다. 대학의 위기나 대학교육의 상실이니 하는 말들이 종종 인구에 회자되고, 대폭적인 구조 조정의 불가피성을 역설하는 목소리도 높다.

그런데 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역사를 지닌 미국의 대학은 이러한 도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20세기 후반부터 미국의 대학은 개발 도상국이나 중진국은 물론 선진국에서조차 많은 학생들을 유치하고 있으며, 타국에 비해 풍요로운 재정을 바탕으로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이 미국 대학교육체제의 완벽성을 뜻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실제로 미국의 대학들도 현재 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미국의 대학이 다른 선진국의 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번성하고 있으며,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대한 신속한 적응력으로 타국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례로, 엄격한 학생선발 및 등록금 제도를 폐지한 후 큰 어려움을 겪던 독일의 대학은 미국 대학의 모형을 토대로 한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하고 있다. 독일의 Munich 공과 대학의 총장은 Newsweek 지와의 대담에서 "우리는 미국의 Stanford, MIT, Caltech 같은 대학을 지향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Kantrowitz, 2003: 46-51).

본문의 목적은, 미국 대학의 성장과 발전 과정에 대한 고찰을 통해 그 성공 요인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함과 동시에, 이를 토대로 우리의 대학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미국의 대학이나 고등교육체제에 관한 국내의 기존 연구들이 특정한 주(州) 혹은 특정한 제도(교수 평가제도, 대학 인증제도, 교육과정 운영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비해, 본 연구는 미국 대학의 강점, 추세, 현황, 문제점 등 보다 전반적인 영역에 치중하고자 한다. 본문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우선, 미국 대학의 변천을 간략히 개괄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미국 대학의 중요한 특징이자 장점을, 다양성을 토대로 한 분화(differentiation), 자율성(autonomy), 실용주의(pragmatism) 등의 3가지로 규정하여 이들 각각에 대해 논의함과 아울러, 대학 발전에 기여한 연방정부의 역할을 소개하고자 한다. 끝으로, 미국 대학이 당면한

문제점과 그 해결을 위한 노력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우리의 대학과 대학교육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II. 미국 대학의 팽창

1636년 설립된 미국 최초의 대학 Harvard를 포함한 초기 대학들은 특정 교과목의 교회에 부속된 학교로 출발하였으며, 이는 곧 종교 전쟁 이후 종교의 자유를 갈구하던 미국인들의 염원이 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Geiger, 1999:39). 대부분의 유럽 대학들처럼 미국 대학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소수 엘리트 계층을 대상으로 출발하였으나, 이미 19세기 중반에 들어서면서 주립대학의 탄생과 더불어 대중교육적인 변화를 예고하였다(Rothman, 1993:40).

미국 대학의 역사가 거의 400년에 이르고 있지만 현재와 같은 미국적 대학의 모형이 정립된 것은 20세기에 들어서서 일어난 일이다. 그전까지 미국의 대학은, 지식의 연마와 인격의 형성을 중시하는 영국 대학의 전통적 모형과, 연구 활동과 미래의 학자 양성을 강조하는 독일 대학의 새로운 모형의 영향을 받으며 성장하였다(Bok, 1986:10). 결국 미국의 대학은, 교육과 연구 활동을 통한 사회 봉사라는 새로운 개념을 정립함으로써 대학과 사회와의 괴리를 제거함은 물론, '학과(academic department)'라는 단위 조직의 도입을 통해 대학의 행정을 민주화하는 동시에, 연구에 대한 재정적 지원 체제와 대학교육의 양적 팽창을 바탕으로 현대적인 대학의 전형을 완성하였다(Altbach, 1999:16-7).

앞서도 언급했듯이, 19세기 중반부터 미국의 대학교육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1870년에서 1945년 사이에 미국 대학의 등록율은 매 15년마다 2배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급격한 대학 인구의 폭증은 2차 대전 이후 시작되는데, 1960년 40%이던 고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이 1970년에는 52%로 증가하였다가 1980년에는 51%로 잠시 주춤하였으나, 1990년에는 61% 그리고 2002년에는 약 70% 정도로 상승하였다. 특히 이중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의 증가분은 대부분이 주립 대학에 의해 흡수되었다(Lucas, 1994:228).

이 같은 대학 팽창의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우선, 1960년부터 현재까지 미국의 인구가 거의 60% 늘었다는 사실이다. 다음으로, 2년제 지역 대학을 포함한 주립 대학의 증가 현상을 들 수 있다. 셋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2차 대전 및 한국전 참전병들에 대한 대학 교육을 지원하는 법안(소위 G.I. Bills)이다. 이 기간 동안 3배로 증가된 연방 정부의 대학에 대한 지원 또한 대학 팽창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본문의 아래 부분에서 별도로 논의하기로 한다. 그 외에도 소수 인종 및 여성에 대한 정원 할

당제도(소위 Affirmative Action), 성인 교육의 기회 증대, 고등 교육에 대한 직업 시장의 요구 등을 원인으로 들 수 있을 것이다(National Panel Report, 2003:3).

2003년의 통계에 의하면, 우리의 기준으로 대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고등교육기관(2년제 전문대 이상)은 미국 전체에 약 3,600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학위 수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2년제 미만의 직업 학교, 그리고 고교 졸업자들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자격증을 수여하는 기관까지를 포함한다면 소위 '중등이후 교육기관(post-secondary institution)'의 수는 6,500을 초과한다. 학생 수로 따지면 거의 1,700만 명이 대학에 재학 중이며, 그 중 대학원생의 수도 200만이 넘는다(National Center for Educational Statistics, 2005:4). 고등학교 졸업생의 약 90%가 대학 진학을 계획하고 있고, 전체 고교 졸업생의 70% 이상이 실제로 대학에 진학하는 셈이다(National Panel Report, 2002:3). 이렇게 볼 때, 미국의 고등교육은 엘리트교육에서 대중교육(mass education)의 단계를 거쳐 이제 세계 최초로 보통(universal)교육의 단계에 접근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그 개방성, 다양성, 그리고 학문적 업적 등 많은 분야에서 타국에 모범이 되고 있다(Boyer, 1987:2-9).

### III. 미국 대학의 특징

위에서 본 미국 대학의 양적 팽창이 그 우수성의 지표일 수는 없다. 더욱이, 고등교육의 양적 증대는 전 세계에 걸쳐 공통된 현상이다. 그렇다면, 미국 대학의 강점은 무엇인가? 1997년 세계의 대학들의 위기를 특집으로 다루었던 영국의 주간지 Economist는 미국 대학의 성공을 대학의 목적과 기능에 따른 '다양성(diversity)'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여타 선진국의 대학들이 별다른 개성 없이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반해, 미국의 대학들은 몇 가지 영역으로 '분화(differentiation)'되어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물론, 대학들간의 불필요한 중복을 피함으로써 높은 효율성을 유지한다는 지적이다(David, 1997: 5-10). 이러한 다양성과 아울러 꼽을 수 있는 것이 자율성이다. 오랜 기간 Harvard 대학 총장을 역임한 Derek Bok은 미국 대학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거의 무제한에 가까운 자율성을 들고 있다. 그는 유럽 대학들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가져오는 부작용을 지적하면서, 미국 대학의 자율성은 곧 대학의 막중한 책임을 의미함은 물론, 다양성의 기반이라고 주장한다(Bok, 1986:10-4, 19). 끝으로 미국 대학의 실용주의 정신, 혹은 실용성을 들 수 있다. 다양성, 자율성과 더불어 미국 대학의 또 다른 특색은 실용주의 정신이다. 미국 대학 특유의 실용주의 정신은 대학과 사회의 괴리를 제거함은 물론, 교육의 기회를 대중에게 확대하고 교육내용을 실용화함과 아울러

‘사회봉사(public service)’라는 독특한 전통을 수립하였다(Bogue & Aper, 2000:18-20). 이상의 세 가지 특징, 즉 다양성과 자율성과 실용성을 각각 부연하면 아래와 같다.

## 1. 다양성과 분화

미국 고등교육체제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 중의 하나는 다양성의 철학에 입각한 대학들간의 기능별 분화(differentiation)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분화는 주로 대학의 인적, 그리고 재정적 자원의 차이에 의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1차 대전 직후부터 시작된 대학교육의 팽창과 더불어 이 현상은 더욱 두드러졌는데, 소위 엘리트 대학은 기숙사에 거주하는 전업(full-time)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양교육과 전문직종과 관련된 소양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대중(mass)을 위한 대학은 집에서 통학하는 시간제(part-time)학생들을 위주로 직업 준비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 같은 분화는 그 후 가속적인 대학교육의 확산과 더불어 더욱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Geiger, 1999:57-8). 그러나 미국 대학들의 기능별 분화 현상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학들이 최상위권의 연구중심대학의 정책이나 제도, 그리고 노선 등을 모방하려는 경향은 분명히 존재한다(Cross, 1993:289). 더욱이 이 같은 분화가 법이나 규정으로 명시된 것도 아니고 강제성을 수반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분화를 설명하는데 사용되는 용어나 설명 방식에는 다소 이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 대략 다음과 같은 분류가 널리 통용되는 편이다.

우선 전체 대학의 약 3% 정도를 차지하는 연구중심의 대학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대개 최상급의 사립 명문대들로서 대학원교육과 학부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둘째로, 고등교육기관의 약 3-4%에 해당하는 소위 ‘박사학위 수여(doctoral-granting)’ 대학으로, 이들은 제한된 양의 연구를 수행하고 역시 제한된 수의 박사학위를 수여하는 대학이며, 규모가 큰 학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셋째로, 전체 대학의 약 20% 이내의 소위 ‘종합대학(comprehensive universities and colleges)’으로, 이들은 주로 학부교육에 치중하면서 석사학위를 수여하는 대학원 과정을 보유하고 있다. 넷째로, 역시 전체 대학의 20%를 밀도는 소위 ‘교양대학(liberal arts college)’으로, 이들의 기능은 전적으로 학부 교육에 국한되며 전공 역시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의 분야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다섯째로, 미국의 고등 교육 기관의 약 40%를 차지하는 2년제 대학으로, 이들의 대부분은 주 정부에 의해 운영되는 ‘지역초급대학(communitv college)’이며, 이들 대학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4년제 대학으로의 편입 준비와 취업 대비 교육이다. 끝으로, 이상의 5가지 범주로 분류되기 어려운 다채로운 형태로 특수화된(specialized) 고등교육기관들을 들 수 있다(Clark, 1993:163-4). 이러한 분류 방식 외에도,

전체 대학을 사립 연구대학, 주립 연구대학, 교육중심대학, 교양대학, 2년제 대학 등으로 나누는 방식도 있는데, 분류의 기본적인 틀이라는 면에서는 전자와 유사하다.

한편, 이와 같이 위계적인 분화 현상이 가시적으로 제도화된 대표적인 예는 California주의 고등교육체제에서 볼 수 있다. 1932년에 발표된 Carnegie 재단의 'California의 주립 고등교육(State Higher Education in California)'이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주 정부에 의해 운영되는 대학이 크게 중앙 주립대학(university of California), 지역 주립대학(California state colleges, 현재는 state universities), 그리고 2년제 대학 등 3등급으로 구분되고 있다(Geiger, 1999:59). 이 같은 분화는 그후 1960년에 더욱 구체화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중앙주립대학은 고교 졸업생 중 상위 12.5%를 선발하여 전문직 훈련과 박사 양성을 실시하고, 지역주립대학은 상위 33%의 학생을 받아들여 학부 중심 교육과 석사과정을 병행하며, 지역초급대학은 입학 자격에 대한 조건 없이 학생들을 수용하여 무상으로 취업교육과 편입준비교육을 제공한다. 2000년을 기준으로 주 정부가 부담하는 1인당 교육 경비는 대학의 등급에 따라 판이한데, 중앙주립대의 경우 19,720달러, 지역주립대 10,116달러, 2년제 지역초급대학 4,457달러이다(Grubb & Lazerson, 2005:11). 이처럼 상이한 교육 목적, 상이한 입학 기준, 그리고 상이한 재정 지원으로 특징지어 지는 California식 주립 대학 체제의 3등급화는 다른 많은 주에 의해 모방되어 왔다.

그런데 위의 분류에서 4년제 종합대학, 혹은 교육중심대학을 제외한 연구중심대학, 교양대학, 2년제 지역초급대학 등은 우리에게 약간 생소한 개념들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우선 연구중심대학부터 시작하기로 한다.

대학의 연구 활동을 기반으로 학자 양성을 위한 대학원교육에 치중하는 미국의 연구중심대학은 독일 대학의 영향을 받아 탄생하였다. 1876년에 설립된 Johns Hopkins 대학을 그 원형으로 하여 확산된 초기의 연구중심대학들은 모두 풍부한 재정과 명성을 겸비한 최상의 명문대학들이었으며, 1900년에 이르러 이들을 주축으로 한 '미국 대학연합(Association of American Universities)'이라는 기구의 발족을 계기로 연구중심대학의 고유한 기능이 강화되기 시작한다. 이들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다양화되고 규모가 큰 연구중심 대학원교육기관으로 성장했으며, 다채로운 전공에 상관없이, 학과 단위의 학사 운영, 지도교수 중심의 지도 활동, 일정 연한의 受講(course work), 논문제출 자격시험, 그리고 박사학위 논문제출 등의 규격화된 틀을 토대로 운영된다(Gumport, 1999:399-403).

미국 대학교육에 있어 매우 독특한 또 하나의 범주는 교양대학이다. 교양대학이란 인문학과 사회과학 그리고 자연과학 등의 교양교육을 위주로 하는 학부중심의 4년제 고등교육기관이다. 이들은 모두 소규모의 사립 학교로서 재정의 대부분을 등록금과 기부금에 의존하기 때문에, 외부 환경의 변화에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제약을 가지고 있다(Breneman,

1993:89-90).

수백만 명의 저소득계층 학생들과 이민자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는, 이른바 지역초급대학이라는 체제 역시 미국 고등교육만의 특색이다. 이 2년제 대학은 주로 주 정부에 의해 운영되는 공립대학으로서, 지역초급대학의 학생들은 고교를 갓 졸업한 학생으로부터 근로성인 및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층을 포괄하며, 교육과정 또한 일반대학의 교육과정 이외에도 각종 직업과 관련된 지식 및 기술 그리고 지역사회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 같은 지역초급대학의 가장 주된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는 바, 첫째는 4년제 일반 대학으로의 편입을 위한 준비이고, 둘째는 취업 준비이다(Koltai, 1993:100-1).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많은 지역초급대학들은, 자기 개발이나 향상된 지위를 원하는 기성의 직장인들을 위한 현직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서 보다 많은 성인 학생들의 유치에 주력해 왔고, 그 결과 지역 대학 학생들의 평균 연령은 198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Ibid. 102).

이상에서 볼 때 결국, 미국의 대학들은 다양성에 입각한 분화를 통해 기능상 불필요한 중첩을 피하고, 각자의 영역에 충실함으로써 효율성을 증진시켜 왔다. 물론 이처럼 위계적인 대학간의 기능적 분화현상에 따른 부작용도 있다. 그 중 우선적으로 지적되는 문제는 일부 대학의 지나친 연구편중으로 인한 교육(teaching), 특히 학부교육의 소홀이다. 연구중심대학의 경우 교수들의 주된 임무는 연구활동의 '확대(amplification)'이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는 학부중심의 개론 수업은 이들에게 당연히 큰 부담이 된다(Clark, 1993:166). 이에 따라, 교수들이 '연구를 너무 많이 하고 교육을 너무 적게 한다(too much research and too little teaching)'라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보다 상세히 다루기로 한다.

이와는 정반대로, 대학의 기능이 학부중심으로 내려갈수록 수업의 부담이 증가되어 또 다른 문제의 원인이 된다. 일반적으로 연구중심대학에서는 교수들의 강의 부담이 주당 4-6시간 인데 비해, 다음 단계의 '박사학위수여' 대학과 '교양대학'에서는 강의 부담이 주당 9-12시간으로, 그리고 종합대학에서는 주당 12시간으로, 끝으로 2년제 지역초급대학에서는 주당 15시간 이상으로 늘어 교수들의 학문 활동을 저해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Ibid. 167).

이에 덧붙여서, 대학의 분화가 심화됨에 따라 연구와 교육이 양극화되어 가는 양상을 보이면서 이 두 가지 활동 모두 내재적인 보상을 상실하게 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즉, 소명 의식보다는 외재적 대가가 연구나 교육 활동의 동기가 되어간다는 지적이다(Ibid. 171-6).

대학 공동체의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즉, 1940년대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대학 교수들은 대학을 하나의 공동체로 간주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는데, 1960년대로 진입하면서 연구 실적을 토대로 한 대학간의 경쟁 및 교수들간의 경쟁이 고조되면서 대학의 공동체적인

분위기는 와해되어 간다는 비판이다(Rothman, 1993:45).

끝으로, 다양성을 토대로 한 위계적인 분화가 대학간의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있다(Grubb & Lazerson, 2005:11). 즉, 앞서 California 주립대학체제에서 보았듯이, 우수한 학생과 교수, 그리고 재정적 지원 등이 연구중심대학에 편중되는 반면, 분화의 위계상 하위 대학들은 제한된 자원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 2. 자율성

미국 대학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색인 자율성은 곧 정부의 통제 및 간섭으로부터의 자유라 할 수 있다. 유럽의 경우와는 달리 미국에서는 어떤 단체나 조직이든 사립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Bok, 1986:11). 물론 대학 설립에 대한 최소한의 지침은 미국에도 존재하는 바, 대부분의 주들은 소비자보호법 내에 고등 교육 기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사이버 사립 대학의 난립을 막고 있다(Bogue & Aper, 2000:50). 그러나 이는 중앙정부의 교육부서가 국·공립은 물론 사립대학까지 통제하는 우리의 방식과 성격상 다른 것이다.

미국 대학의 자율성은 사립대학의 설립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사립대학은 물론 주립대학까지도 교수 선발 및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 폭 넓은 자유가 보장되며, 사립대학의 경우는 학생 선발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같은 미국 대학의 자율성은 1957년 연방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재확인되는데, 여기서 연방 대법원은 대학의 본질적 자유를 '교수 채용, 교육내용 선정, 교육방법의 선택, 그리고 학생 선발(who may teach, what may be taught, how it shall be taught, and who may be admitted for study)' 등의 4가지로 규정하고 있다(Ibid. 40).

미국 대학의 일반적인 통치(governance)는 공·사립을 막론하고 이사들로 구성된 기구인 이사회(governing board)를 통해 이루어지며, 사립대학의 경우 이사를 trustee라 부르고 공립대학에서는 대개 regent라고 칭한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이들 이사들의 비전문성(lay)이다. 즉, 공공의 이익을 가장 잘 대변할 것으로 기대되는 비전문적인 시민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대학 행정에서 최고의 권위를 상징하는 기관이다. 이 같은 비전문인에 의한 통제의 유래는, 과거 식민지 시절 대학 행정에 대한 성직자들의 개입을 봉쇄하는 제도, 즉 대학의 운영을 평신도(lay)들이 담당하는 제도에서 찾을 수 있다(Kaufman, 1993:222-3).

그러나, 이사회가 미국 대학 통치의 유일한 주체는 아니다.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총장의 힘이 강해져 종종 총장을 '현학적인 선장(captains of erudition)'이라 부르기도 했고, 20세기에 들어와서는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과 교원인사에 관한 교수들의 영향력이 증대되었다. 현



재 미국의 대학 중 90% 이상은 교수들로 구성된 의회(faculty senate)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고등교육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 대학을 대표하는 상징적이면서도 실질적인 기구이다 (Bogue & Aper, 2000:38).

한편, 대학 이사회의 주요 소관 사항은, 대학의 목적과 임무의 설정, 총장 임명 및 업무 지원, 총장 업무 수행 평가, 대학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자원의 확보, 대학 독립성의 유지, 분쟁에 대한 최종적 조정 등 매우 다양하다. 이사의 선정에 있어 사립대학과 주립대학은 상이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사립의 경우 새로운 이사진은 기존의 이사진에 의해 선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이유에서 사립 대학의 이사진을 '자가 영속적(self-perpetuating)'이라고 묘사하기도 한다. 주립 대학의 이사진은 주에 따라 선거에 의해 뽑히기도 하고, 주 의회의 권고나 동의를 통해 주지사가 임명하기도 한다. 그런데 선출직의 경우 교육과 관련된 문제에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주 의회의 승인을 얻어 주지사에 의해 임명되는 제도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Ibid. 46-9). 이상에서 보았듯이, 미국 대학의 통치의 주체는 이사회, 총장, 그리고 교수의회 등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이들간의 분권과 협력, 그리고 견제와 균형을 통해 대학의 자율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것이 곧 '통치의 공유(shared governance)'라는 개념이다(Ibid. 54-5).

이와 아울러 미국의 사립대학은 재정적 측면에서 철저한 독립성을 유지한다. 즉, 등록금은 물론 각종 기부금을 포함한 대학의 재정 및 재산 관리는 전적으로 대학의 소관이며, 심지어 주립대학에서도 예산집행에 관한 한 상당한 자율권이 대학에 허용된다. 이러한 재정적 자율이 가능했던 중요한 이유는 아마도 미국만의 독특한 기부 문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Rothman, 1993:40).

여기서 미국 대학의 재정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기부금에 대해 간략히 논의해 보기로 한다.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벌이는 미국 대학의 기부금 모금(fund raising)은 일시적인 예산 부족을 메우기 위한 임시방편이 아니다. 모금 활동은 면밀한 계획과 이를 전담하는 조직에 의해 수행되는 지속적인 활동이다. 이는 비단 사립대학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오늘날 미국의 주립대학 중 유럽이나 우리나라의 국·공립대학처럼 '정부의 재정에 의해 유지되는(state-supported)' 대학은 거의 전무하며, 많은 주립대학들의 정부에 대한 재정 의존도는 약 20% 정도로서, 이들은 스스로를 '정부의 보조를 받는(state-assisted)' 기관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볼 때, 미국 대학의 기부금 모금활동은 대학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대학의 모금활동은 단순히 잠재적인 기부자들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가 아니며, 대학과 기부자와의 신뢰와 믿음을 전제로 한다. 이런 의미에서 모금활동을 '친구를 만드는 일(friend-raising)'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기부금의 기록 및 보고에 관한 회계 절차는 대학에 따라 상이하지만, '미국 대학 사업국(National Association of Colleges and Universities

Business Officers)'은 이에 대해 엄격한 규정을 제정해 놓고 있다(Rhodes, 1997:xviii-xxiii). 한편 대학에 대한 기부자들은 독지가, 동문, 교직원, 학생 가족, 기업체나 단체, 기부 재단 등으로 다양하며, 모금활동 또한 잠재적 기부자들과의 정기적 접촉, 홍보, 특별 행사 등의 다채로운 형태로 이루어진다. 기부금 모금활동과 관련하여 우리의 정서를 바탕으로 제기될 수 있는 한 가지 의문은 '하위권의 대학 또는 2년제 지역 대학도 기부금의 수혜자가 될 수 있을까'하는 것인데, 최상위권의 명문대처럼 엄청난 액수는 아니지만 학부교육 중심의 4년제 대학, 소규모의 교양대학은 물론 2년제 지역대학이 적극적인 모금 활동으로 재정난을 타개한 성공 사례는 전혀 드물지 않다.

미국의 대학도 대학운영에 관한 모든 면에서 완벽한 자유를 향유하는 것은 아니다. 연방 정부는 대학의 학생선발이나 교직원 채용에 있어 인종·성별·연령·종교·출생국 등에 따른 차별을 일체 금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연방정부 및 주 정부의 연구 지원체제로 인해 대학에 대한 정부의 개입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학이 누리는 자율성은 다른 어떤 국가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이것은 곧 미국 대학이 보유한 높은 경쟁력의 원천으로 작용하고 있다(Bok, 1986:11-4). 자율은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그에 따르는 무한한 책임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미국 대학의 자율성은 대학의 독자적인 책무성(accountability)을 의미하는 바, 정부의 관리 및 규제에 익숙한 타국의 대학에 비해 미국 대학의 생존력과 적응력이 뛰어나다는 것은 당연한 귀결처럼 보인다.

### 3. 실용주의

다양성, 자율성과 더불어 미국 대학의 또 다른 특색은 실용주의 정신이다. 미국의 고등교육은 이러한 실용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교육의 기회라는 측면에서 엘리트 중심에서 근로대중 중심으로, 교육내용의 면에서는 교양에서 실질로, 그리고 지식 자체를 위한 탐구에서 사회적 복리 증진을 위한 응용으로 변모하여 왔다(Bogue & Aper, 2000:18-20). 즉, 미국 대학의 실용주의는 한편으로 교육내용을 실용화시켰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봉사라고 하는 독특한 전통을 수립한 바, 이를 부연하면 아래와 같다.

직업과 관련된 지식이나 기능을 교육과정에서 제외시켜왔던 유럽의 대학과는 달리, 미국의 대학교육은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실용성을 강조하기 시작한다. 이 시기에 미 육군사관학교(West Point), Rensselaer Polytechnic, 그리고 몇몇 농업대학의 설립과 더불어 미국 대학의 교육과정이 실용화되어 가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한다. 특히, 기계 공학이나 농학 등의 실용

적인 학과를 개설하는 대학들에 연방정부가 토지를 증여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1862년에 제정된 Morrill Land Grant 법안은, 대학의 교육내용을 '직업화(vocationalization)' 하는데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 같은 교육과정의 직업화는 미국의 고등교육에 두 가지 큰 변화를 가져왔는데, 첫째는 교육내용의 선정 및 조직에 학생의 필요가 반영된 것이며, 둘째는 사범대학이나 농업대학을 보유한 주립대학들이 탄생한 것이다(Grubb & Lazerson, 2005:2-4). 한편 Morrill 법안과 아울러 미국 대학의 교육과정을 실용화하는데 기여한 사건이 두 가지 더 있는데, 그 하나는 경제대공황이고 다른 하나는 1957년의 Sputnik호 발사 사건이다. 경제대공황은 실용적 지식과 직업 교육의 중요성을 절실히 재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소련의 Sputnik호 발사는 대학교육을 국가 안보와 연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Geiger, 1999:55-6; Lucas, 1994:253).

요약컨대, 실용주의 정신에 입각한 미국 대학 교육과정의 실용화 혹은 직업화는, 사회와 유리된 상아탑으로서의 대학이 아닌, 실생활에 필요한 교육기관으로서의 새로운 대학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하였다. 뿐만 아니라, 대학에서 제공하는 실용적인 교육은 보다 많은 사람들을 대학으로 유인함으로써 고등교육의 기회를 확대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대학교육의 실용화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일부 학자들과 총장들은 미국 대학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식의 상품화를 비판하며, 지식 생산공장이 아닌 진리의 탐구와 인격의 도야를 위한 진정한 교양교육(liberal education)의 강화를 주장한다(Lucas, 1994:269).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대학 교육은 직업에 대한 준비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서, 실용적인 지식과 기술의 습득에 선행하는 교양교육의 중요성은 결코 간과될 수 없다. 여기서 교양교육이라 함은, 인간을 무지로부터 해방시키고 사회적 책임의식을 고취하는 교육을 일컫는 것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공통으로 부과되는 '일반 교양교육(general education: 우리 나라의 대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것을 교양교육이라고 칭함)'과 전공교육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National Panel Report, 2003:25).

실용주의 이념이 발현된 또 다른 형태는 미국 대학의 사회봉사이다. 사회봉사는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성인반 운영, 각종 집회 장소 제공, 단기 강좌 개설, 직업 연수 등의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Bogue & Aper, 2000:21). 그런데 이처럼 우리의 대학에서도 볼 수 있는 프로그램 이외에, 매우 특색 있는 봉사활동이 지난 20년 동안 미국 대학에 의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다름 아닌 고등학교와의 연계(partnership)활동이다. 이 연계사업은, 대학이 보유한 자원을 통해 고교교육의 취약점을 보강해줌으로써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고교교육의 질적 향상을 통해 보다 나은 수학능력을 갖춘 신입생을 확보한다는 취지 하에 실시되고 있다. 대학과 고교간의 연계 사업은 대개 동일 지역의 대학들로 구성된 협동체(consortium)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며, 2000년 현재 미국 전역에 걸쳐 32

개의 협동체가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연계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역이나 협동체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대학이 제공하는 개인 교수(tutoring), 대학이 주도 내지 동참하는 지역 고등학교 개혁운동, 고교생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대학 경험의 기회 제공, 개인의 직업 및 지역 개발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Druckman et al., 2002:11-2).

요약컨대, 미국 대학의 실용주의 정신은 실질적 교육내용과 봉사활동을 통해 대학과 사회 간의 강한 유대와 신뢰를 형성해 놓았다. 뿐만 아니라, 실용주의 정신으로 무장된 대학은 현실적 감각을 유지함으로써 변화하는 환경에 성공적으로 대응해왔다. 대학에 대해 유달리 관대한 미국의 기부문화는 미국 대학의 실용성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대학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대학에 대한 신뢰가 기부행위를 동기화시키기 때문이다.

#### 4. 정부의 역할

미국 대학의 발전에 있어 주목할 만한 부분은 정부의 역할이다. 미국 대학의 가장 큰 도약기인 20세기 후반 정부의 역할은 매우 의미 있는 것이었다. 1862년 Morrill 법의 제정으로 실용적 학문을 가르치는 주립대학의 설립에 주도적 역할을 한 정부는, 2차 대전을 치르면서 대학의 연구기능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한다. 이에 따라, 20세기초까지 주로 독지가들 혹은 박애적 정신에 입각한 민간 기부재단(philanthropic foundation)들에 의해 충당되던 대학의 연구재정에 대해, 정부, 특히 연방정부가 중요한 지원자로 부상한다. 실제로, 2차 대전부터 1972년 사이에 연방정부가 지출한 연구개발비 중 대학에 유입된 몫과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금은 모두 두 배로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양상은 국가경제의 부침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다(Gumport, 1999:403-5). 연방정부의 지원을 촉구하는 전문가들의 요구도 정부의 역할을 활성화하는데 일조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1950년대로 접어들면서 미국의 고등교육이 폭발적으로 확산될 조짐이 보일 무렵 구성된 '고등교육에 대한 대통령직속위원회(President's Committee on Education Beyond the High School)'는, 1956년과 그 이듬해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대학생 수의 폭증에 따른 교수의 공급, 학생에 대한 지원체제의 정비, 교육기회의 증대와 다양화, 기금의 확보 등을 제언하고 이를 위한 연방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촉구하였다(Henry, 1975:100-3).

연방정부의 지원은 대학의 연구활동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1937년 제정된 '암에 대한 법(National Cancer Act)'을 통해 대학원생에 대한 장학금 형태의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선행화한 후, 주로 이공계 분야의 박사양성교육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왔으며, 지원방식은 대학원생에 대한 직접적인 장학금 지급, 특정기관을 통한 학비보조, 그리고 연구조교의

급여를 보장하는 연구과제의 지원 등의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Gumport, 1999:409).

연방정부의 연구지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수월성(excellence)이기 때문에 많은 지원금은 자연스럽게 소수의 최상급 사립 명문대학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 같은 현상은 결국 이들 대학의 재정을 풍요롭게 하는 동시에 우수한 교수와 학생을 유인하는 이중의 효과를 창출하였다(Gumport, 1999:409). 그러나, 1970년대에서 1980년대를 거치면서 정부의 연구비지원은 분산되는 추세를 보이며, 이들 명문 사립대들의 수혜가 감소되는 반면 연구중심을 지향하는 주립대들에 대한 지원이 증가되었는데, 이 같은 현상에 대한 한 가지 이유는, 명문 사립대에서 양성된 우수한 연구인력이 이들 주립대에 확산되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Geiger, 1993:73).

한편, 1960년대 말부터 시작된 미국경제 전반의 침체로 인해 연방정부의 역할은 위축된다. 실례로, 1968년에서 1971년 사이에 기초과학분야에 대한 연구지원금이 10% 감소되었으며, 1968년에 50억 달러이던 연방 재정 지원의 규모가 1974년에는 47억 달러로 축소되는데, 이 기간 동안의 인플레이가 미국 역사상 최악의 것 중 하나였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는 상당한 감축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해결책을 강구하는데, 기부금 유인, 각종 모금 행사, 등록금 인상 (주립대의 경우, 지방 정부의 지원 유치), 그리고 산학연계(産學連繫) 등이 이들이 모색한 대안들이다. 특히 산학연계는 연방정부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대안으로 보였고, 따라서 정부는 산학연계를 통한 기업체의 대학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나서는 바, 이를 계기로 대학에 대한 기업의 지원이 증가하기 시작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학의 연구활동은 아직도 상당한 정도를 연방정부에 의존하고 있다. 1990년대 말의 통계에 따르면, 대학이 수행하는 기초과학 연구의 60% 정도가 연방정부의 지원에 의한 것이며, 정부가 지출하는 전체 연구개발비의 10%가 대학으로 유입되고 있다(Gumport, 1999:411-5).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학에 대한 연방정부 및 주 정부의 지원이 추가된 부분도 있다. 1972년 소위 '교육 개정법(Education Amendments)'의 제정으로 인해 정부가 대학생의 학자금을 보조하는 체제가 확립되었고, 이를 위해 정부지원의 사설기관인 '학생융자협회(Student Loan Marketing Association)'가 탄생하였다. 학자금지원의 형태는 장학금(grant), 근로 장학금(work-study program), 학자금 융자(student loan), 직접 융자(direct loan) 등으로 다양하며, 이 제도는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뿐 아니라, 대학교육의 기회 및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는데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Breneman, 1993:90). 2003년을 기준으로, 100만이 넘는 대학생들이 학자금융자 서비스를 받고 있고, 연방정부의 장학금의 수혜자들은 약 100만 정도로 추산되며, 주 정부의 혜택을 받는 학생들로 약 70만 명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2005:A-24).

결국, 연방정부는 대학의 연구활동, 대학원교육, 그리고 학부교육 등의 영역에 걸쳐 재정적 후원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정부의 재정지원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는 시각도 있다. 즉, 이 같은 체제가 대학의 자율성과 학문의 자유로 상징되는 대학의 기본정신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그것이다(Lucas, 1994:235). 그러나, 연방정부의 지원은, 통제나 간섭을 위한 수단이 아닌 순수한 지원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 IV. 미국 대학의 당면 과제

미국의 대학이라고 해서 모두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번창하는 것은 아니다. 적지 않은 수의 대학이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심지어 폐교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일부 대학은 생존을 위해 과대 광고는 물론 경쟁 대학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을 하는 경우도 있다(Bok, 1986:14, 27). 더욱이, 미국의 고등교육이 양적으로는 세계 최초로 보통교육의 단계에 진입했다고는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는 아직도 많다. 이들 중 몇 가지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Boyer, 1987:2-9). 우선 고등학교와 대학간의 괴리, 즉 신입생에 대한 대학의 기대치와 실제 고교졸업생들의 수학준비도 간의 불일치를 지적할 수 있다. 다음으로, 실용성을 추구하는 직업주의(vocationalism)와 교양적 지식간의 양극화의 문제를 들 수 있다. 끝으로, 이미 언급된 바 있는 연구와 교육 사이의 균형의 문제, 그리고 교육활동에 대한 평가의 문제를 들 수 있는데, 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 번째 문제는, 고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곧 바로 진학하는 학생들의 수학능력 저하현상이다. 미국 교육부의 통계에 의하면, 대학에서의 수학에 필요한 교과 과정을 고등학교에서 이수하는 학생은 불과 47% 정도이고, 4년제 대학생의 40% 그리고 2년제까지 포함한 전체 대학생의 53%가 정규교과 외에 별도로 실시되는 '보충수업(remedial study)'을 받아야하며, 교정수업을 많이 받는 학생들일수록 대학을 중도에 이탈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National Panel Report, 2003:3). 이렇게 볼 때, 신입생의 학력저하는 다시 학생의 보존(retention), 즉 신입생을 입학한 대학에 머무르게 하는 문제로 이어진다. 특히, 대학의 학생 보존율은, 그것이 특정 대학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기 때문에, 보존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하위권 대학들은 기발하고 창의적인 학생중심 교육 프로그램을 고안해 내고 있다. 미국 대학생들의 중도 이탈율(타교로의 전학 포함)에 관한 최근의 자료에 의하면, 학생선발이 상당히 선택적인 대학의 경우 약 8.4%인데 반해, 지원자들 전원을 수용하는 개방형(open-door) 대학에서의 이탈율은 거의 46%에 이른다(Levitz et al.,

1999:31). 참고적으로, 1997년 입학생을 기준으로 한 2004년의 통계에서 4년제 대학전체의 평균 졸업율은 54.3%로 보고되고 있다(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2005:12). 결국, 높은 이탈율과 낮은 졸업율은 미국 대학이 직면한 도전인데, 이 도전의 기저에는 대학 홀로 풀 수 없는, 고교생의 학력저하라는 문제가 있다.

다음으로, 교양교육과 직업교육간의 양극화의 문제는 이미 실용성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언급한 바 있으므로, 연구와 교육간의 균형 문제로 넘어가기로 한다. 1980년대에 들어와 미국 대학의 지나친 연구편중이 대학의 가장 우선적인 임무인 '교육(teaching)'의 경시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Geiger, 1993:79). 이에 따라, 대학들은 교육기능의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결과 학생들의 학습 성과에 대한 평가 및 분석 작업이 대학별로 진행되고 있으며, 우수한 교육활동에 대한 보상(예를 들어 '올해의 최고 교사: The Best Teacher of the Year' 선정 등), 교육활동 평가, 그리고 수업 향상을 위한 연구 및 지원부서 운영 등의 제도적 장치들이 도입·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Cross, 1993:288-9).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교육활동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연구중심대학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것이다. 1987년 Harvard 대학의 총장이었던 Derek Bok은, 학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등록금에 상응하는 교육 서비스를 받고있는지의 여부를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학생들이 Harvard에서 학습한 경험을 평가하는데 노력을 경주하였다. 또한, 1990년 Stanford에서 당시 총장이었던 Donald Kennedy는, 대학 평의회(academic council)에서 "이제 우리는 교육(education), 즉 모든 형태의 가르침(teaching)이 곧 대학의 가장 주된 임무임을 재확인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하고, 그 후 교육활동에 대한 보상기금으로 약 700만 달러를 모금하였다(Cross, 1993:290-1).

한편, 일부 주립대학의 경우 교육활동을 강조하는 분위기는 대학을 벗어나 주 의회로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실제로 Maryland 주를 포함한 몇몇 주는 이미 교수들의 교육 활동에 대한 제반 의무 규정을 입법화하기에 이르렀다(Colbeck, 2002:3).

교육활동의 강화는 분명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제도적인 장치는, 그것이 최소의 기준을 제시하는 강제규정(mandate)이든, 보상을 통해 동기화하는 유도체제(inducement)이든 간에, 한계가 있다(Ibid. 13). 특히, 교육활동에 대한 객관적 평가의 문제는 가장 민감하면서도 함의를 보기 어려운 사안이다(Cross, 1993:293). 실제로 본 연구자가 교육활동의 평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일부 미국 대학의 교수나 행정가들과 면담을 해본 결과 그들 대부분은 '교육활동을 객관화 내지 수량화하는 것은 지극히 어렵기 때문에, 연구물의 양이 최선이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차선책으로 연구업적을 위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토로한다.

끝으로, 대학이 학생에게 요구하는 지적 기준(academic standard)이 저하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극단적인 학생운동으로 인해 대학 내의 소요가 절정에 달했던 1960

년대와 '70년대부터 비롯되었는데, 당시 대학의 모든 지적 전통은 비민주적인 것으로 매도되고, 필수과목과 과제가 줄어드는 등 지적 이완현상이 일어났다. 이와 아울러, 학생을 소비자로서 보는 '시장모형(market model)'의 묵시적인 수용이 이 같은 지적 이완을 악화시키고 있는바, 그 명백한 예가 바로 소비자 만족을 위한 '학점인플레이(grade inflation)'이다. 실제로, 1992년의 한 자료에 따르면, Harvard대와 Stanford대에서 C학점 이하의 등급을 받은 학생은 10%도 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현상을 오도된 평등주의의 산물이자 지적 기준의 포기로서 보는 시각도 있다(Lucas, 1994:291-2).

이제까지 논의된 문제 이외에도, 미국 대학이 직면한 과제는 대학의 행정, 재정, 교육과정, 학생문화 등 많은 분야에 산적되어 있다. 특히, 4년제 사립대 재정의 등록금 의존도가 33.9% 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엄청난 수의 사립대들은 생존을 위한 자구책을 부단히 모색해야한다(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2005:8). 결론적으로, 미국 대학의 번성이 그 완벽성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Harvard대 총장을 지낸 Derek Bok의 "이제까지의 업적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학의 성공이 자기만족의 수준은 아니다(Despite these accomplishment, our success is hardly a cause for complacency.)"라는 말은 의미심장하게 들린다(Bok, 1986:32).

## V. 논의 및 제언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미국 대학은 다양성, 자율성, 그리고 실용성이라는 강점을 토대로 변화하는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해 왔으며, 이 같은 성공에 연방정부도 일조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성공의 비결은 우리의 대학에 전혀 생소한 정보가 아니다. 한국의 대학을 위한 충고 중에 자율성이나 다양성이 빠지는 충고는 거의 없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역시 많은 정책 제언의 고정항목이다. 그렇다고 이러한 충고와 제언이 잘못 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본 연구를 통해 이들의 타당성이 입증된 셈이다. 더욱이, 거듭되는 충고로도 현실이 개선되지 않는다고 해서 충고를 포기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로, 다양한 기능에 기초한 대학의 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의 대학도 이제 더 이상 엘리트 교육기관이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양적으로 팽창되어 있다. 고등교육이 미국처럼 보통교육의 단계에 이른 것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 대중교육의 수준에는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 대학에 재학할 연령층의 인구 중 60% 이상이 실제로 대학에 다니고 있으며, 고등학교



졸업자의 90%가 어느 시점엔가는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고 있다(이돈희, 2003:225). 이처럼 엄청난 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체제에 다양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은 학생들의 개성과 선택권의 무시하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우리 나라의 대학은 외형적으로는 4년제 대학, 전문 대학, 기술 대학, 방송 통신 대학 등으로 다원화된 듯 하지만, 그 기능이나 운영의 면에서 볼 때 큰 차이를 인식하기 어렵다. 4년제 대학들간의 특성화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2년제 대학들은 4년제 대학의 축소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김신복, 1999:78-9). 결국, 다양한 수요를 전제로 다양한 교육목적, 기능, 임무 등에 따라 대학을 분화하는 것은, 대학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생존 자체를 위한 방안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대학의 자율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특히, 정부의 교육부서가 집권당의 교육이념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대학의 자율성은 더욱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정치인들의 각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들은, 교육정책을 자신들의 득표전략으로 이용하는 것이 교육을 위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다음으로, 정부의 인식 및 자세 변화가 필요하다. 한국 교육에 있어서 주요한 변화는 정부의 주도하에 시도되어왔으며, 대학 역시 여기서 예외일 수는 없다(진동섭, 2003:137). 이러한 정부의 행태는 바뀌어야 한다. 앞서 보았듯이, 미국의 연방정부는 대학의 발전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다방면으로 지원해왔다. 정부가 사립대의 등록금 인상률을 통제하고 학생 선발을 관리하는 체제는 시대착오적일 뿐 아니라 사학의 존립의의에 대한 부정이다. 국·공립대에 대한 사고도 전환되어야 한다. 이들은 정부의 통제를 받는 하위기관이 아니라, 국가 교육을 위한 공기(公器)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대학은, 자율이 단순히 간섭의 부재가 아닌, 책임과 의무를 수반하는 내적 통제의 개념이라는 사실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이돈희, 2004:231).

대학의 자율성이 무엇보다 시급한 분야는 재정이라고 본다. 미국의 예에서도 목도했듯이, 견실한 재정 없이는 대학의 발전은 불가능하다. 한국 대학의 재정은 여타 선진국들에 비해 지극히 열악한 실정으로, 정부의 지원도 상대적으로 미약하고 등록금의 현실화에도 큰 제약이 있다(민경찬, 2003:194-5). 정부의 지원을 대폭적으로 늘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는 현실적으로도 어렵지만, 설령 가능하다 하더라도 대학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만은 볼 수 없다. 미국의 경우에서도 나타나듯이, 정부의 재정적 지원에는 자율성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있으며, 우리의 경우는 더욱 심하다. 결국, 대학, 특히 사립대학은 재원을 다원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정부는 이에 대한 간섭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자율화를 위한 대학의 노력도 중요하다. 자율화에 대한 회의는 대학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불신을 제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미국의 연구중심대학들이 교육활동을 강조하고, 많은 대학들이 사회봉사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강화시키는 것은 우리 대학에 큰 시사를 준다. 이러한 노력은, 대학에 대한 신뢰회복을 촉진시킬 수 있기 때

문이다. 이와 아울러, 대학의 주요 의사결정과정을 투명화하는 것도 신뢰회복에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끝으로, 대학행정가의 역할에 대해, 참신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제언을 하나 하고자 한다. 대학행정가는 효율적 경영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대학의 가치는 영리가 아니다. 더욱이, 대학의 기업화, 연구 및 교육활동의 상업화는 분명 지양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학은 더 이상 보호의 대상이 아니며,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면서 생존하고 번성해야 하는 하나의 조직이다. 교내의 문제들도 중요하지만, 대학행정가, 특히 총장은 대외홍보, 지역사회 인사와의 접촉, 기부금 모금, 국제교류 등의 활동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해야 한다. 교수들 역시 총장이나 '보직자'들에 대한 냉소나 무관심에서 벗어나 이들의 업무수행을 독려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한 사회의 제도는 그 사회의 문화나 관습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한국의 대학은 한국 사회의 중요한 제도 중의 하나이며, 따라서 미국 대학의 단순한 모방이 한국 대학의 성공을 보장할 수는 없다. 더구나, 미국 대학이 겪어온 상황과 한국의 대학이 처한 오늘날의 상황은 동일하지 않다. 그러나 그들의 오랜 역사와 다양한 경험, 그리고 많은 시행착오로부터 우리 대학이 직면한 난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얻으려는 노력은 의미 있는 것이라고 믿으면서 본문을 맺고자 한다.

## 참고문헌

- 김신복(1999). 고등 교육의 문제. 정원식·박성수 공편. 한국 교육 문제론. 서울: 교육과학사.
- 민경찬(2003). 대학 교육의 수월성과 자율성. 정진곤 외 공편, 한국 교육 정책의 방향과 과제. 서울: 교육과학사.
- 이돈희(2003). 세기적 전환과 교육학적 성찰. 서울: 교육과학사.
- 진동섭(2003). 권리로서의 전문적 성장을 보장하는 교원 정책. 정진곤 외 공편. 한국 교육 정책의 방향과 과제. 서울: 교육과학사.
- Altbach, P.A.(1999). Patterns in higher education development" in Altbach, P.A.(eds.). *American higher education in the twenty-first century*. Baltimore: John Hopkins Univ. Press.
- Bogue, E.G. & Aper, J.(2000). *Exploring the heritage of American higher education*. Phoenix, Arizona: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Oryx Press.
- Bok, D.(1986). *Higher Learning*. Cambridge, M.A.: Harvard Univ. Press.
- Boyer, E.L.(1987). *College: the undergraduate experience in America*. N.Y.: Harper & Row, Publishers.
- Breneman, D.W.(1993). Liberal arts college: what price survival?" in Levine, A.(ed.). *Higher learning in America*. Baltimore: Johns Hopkins Univ. Press.
- Breneman, D.W.(2005). Entrepreneurship in higher education. *New Directions for Higher Education*. no.126, Spring. 3-9.
- Clark, B.R.(1993). Faculty: differentiation and dispersion. in Levine, A.(ed.). *Higher learning in America*. Baltimore: Johns Hopkins Univ. Press.
- Colbeck, C.L.(2002). State policies to improve. *Journal of Higher Education* 73. no.1. 3-25
- Cross, K.P.(1993). Improving the quality of instruction. in Levine, A.(ed.). *Higher learning in America*. Baltimore: Johns Hopkins Univ. Press.
- David, P.(1997, Oct. 4). Universities: Survey. *Economist*.
- Druckman, R. et al.(2002). Partnerships with K-12 education. *New Directions for Higher Education*. no. 120, Winter. 11-18
- Geiger, R.L.(1993) Research universities in a new era. in Levine, A.(ed.). *Higher learning in America*. Baltimore: Johns Hopkins Univ. Press.
- Geiger, R.(1999). The ten generations of higher education. in Altbach, P.A.(eds.). *American higher education in the twenty-first century*. Baltimore: John Hopkins Univ. Press.
- Goodchild, L.F.(1999). Transformations of the American college ideal: six historic ways of learning. *New Directions for Higher Education*. no.105, Spring. 7-23

- Grubb, W.N. & Lazerson, M.(2005). Vocationalism in higher education: the triumph of the education gospel. *Journal of Higher Education* 76. no.1. 1-23
- Gumport, P.J.(1999). Graduate education and research. in Altbach, P.A.(eds.). *American higher education in the twenty-first century*. Baltimore: John Hopkins Univ. Press.
- Henry, D.D.(1975). *Challenges past, challenges present*.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 Kantrowitz, B.(2003, Sep. 15). Learning the hard way. *Newsweek*.
- Kaufman, J.F.(1993). Governing boards. in Levine, A.(ed.). *Higher learning in America*. Baltimore: Johns Hopkins Univ. Press.
- Koltai, L.(1993) Community colleges: making winners out of ordinary people. in Levine, A.(ed.). *Higher learning in America*. Baltimore: Johns Hopkins Univ. Press.
- Levitz, R.S. et al.(1999). Strategic moves for retention success. *New Directions for Higher Education*. no. 108, Winter. 31-49
- Lucas, C.J.(1994). *American higher education*. N.Y.: Martin's Press.
-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al Statistics(2005). *Enrollment in Postsecondary Institutions. Fall 2003*. U.S. Dept. of Education.
- National Panel Report(2003). *Greater Expectations*. Washington, D.C.:Association of American Colleges and Universities.
- Rhodes, H.T.(1997). Introduction. in Rhodes, H.T.(ed.). *Successful fund raising for higher education*.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Oryx Press.
- Rothman, S.(1993). Tradition and change. in Dickman, H.(ed.). *The imperiled academy*. New Brunswick: Transaction Publisher.

\* 논문접수 2005년 8월 13일 / 1차 심사 2005년 8월 27일 / 2차 심사 2005년 9월 5일

\* 이성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교육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미국 Stanford 대학에서 교육학 박사학위(교육 철학)를 취득하였다. 현재 중앙대학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논문으로는 "학교의 책무성에 대한 고찰", "평등의 철학적 분석과 그 교육적 함의" 등 다수가 있다.

\* e-mail: seongho@cau.ac.kr

Abstract

## The Distinctive Features and Tasks of American Universities: Diversity, Autonomy, and Pragmatism

Lee, Seongho\*

In this paper, I have attempted to illuminate the distinctive features of American universities and colleges which have made them the most thriving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throughout the world. In doing this, I have also endeavored to delineate current tasks of American higher education. In addition, I have tried to derive some implications for Korean universities and colleges that are struggling.

The paper comprises four main part. First, I have briefly reviewed the transformation of American higher education from elite to mass, and to universal education system, concentrating on its demographic expansion. Second, I have investigated three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the American university respectively — differentiation based upon diversity, autonomy, pragmatism — which have led to its success; and I have probed into the role of the federal government for the higher education. Third, I have discussed some impending problems of the American university and its efforts to solve them; they are lack of academic preparation of high school students for college, imbalance between research and teaching, conflict between vocationalism and liberal education, de-emphasis of teaching, etc. Finally, I have made suggestions, based on my analysis of the American university, for Korean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more diversity and autonomy.

Key words: American universities, differentiation, diversity, autonomy, pragmatism, research university, comprehensive university, liberal arts college, community college, fund raising

---

\* Chung-Ang University